

#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 급증

특허청에서 특허심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보통 23개월)로 줄일 수 있는 특허 출원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제도란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조기에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자기실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벤처 붐의 진정으로 인하여 벤처 기업에 의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우선심사 신청인 구성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의 초기 기술경쟁력 확

보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999년 이후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 및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life-cycle)이 짧은 전자거래와 관련된 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앞으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보다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화상 디자인, 의장권 인정받다

홈페이지·PDA 등 화상 디자인을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의장권 인정'을 규정, 신설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도 특허법에 의해 의장권을 인정받게 됐다.

특허청은 지난달 8일 '인터넷 홈페이지 디자인을 포함하여 컴퓨터나 휴대전화, PDA 등 정보통신 기기의 각종 화면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을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장권(디자인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초기화면 디자인 등 각종 화상디자인을 새로 창작했을 경우 의장권 등록 출원을 통해 신규성과 창작성이 인정되면 의장권을 부여받게 되어 추후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일반이 접촉하는 화상 디자인은 창작자의 시간과 비용, 노력 등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었다'며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전화 액정화면

등에 나타나는 화상디자인에 대해서도 의장권을 인정하게 돼 창작자들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의장심사기준(제3조 제1호)에 '물품의 액정 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의장(design)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의 화상 디자인도 의장권을 인정받게 됐다.



**■ 지면안내 ■**

- 3 한국여성발명협회 APEC 제8차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 참가
- 5 맥도날드 중국의 유사상표 사용에 골머리
- 6 생활 속의 지혜·화장품 오랫동안 보관하기
- 9 인물 FOCUS 솔이원 김점선 대표
- 10 부산과학교육연구원 발명교실
- 12 나도 발명가·떡볶이를 이용한 휴대용 비누
- 13 미국,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14 서울산업대학교 발명개발연구회 여름발명학교 개최

**[기사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538-2710

# 한국 특허청, 국제특허심사 대행 역할 확대

하동만 특허청장은 지난 8월 4일 인도 뉴델리에서 라지바 라타 샤(Rajeeva Ratna Shah) 인도 상공부차관과 한·인도 특허청장회담을, 같은달 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압둘 바리 아제드(Abdul Bari Azed) 인도네시아 특허청장과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 회담을 각각 가졌다.

최근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증가와 함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하였고, IT, BT 등의 분야에서 인도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가 자국 국민의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한국 특허청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여 이번 청장 회담을 통해 이를 수락키로 한 것이다.

이번 인도 및 인도네시아 양국과의 협정으로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4개국에 대

해 국제특허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인력과 특허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들 양국과의 협력은 1997년 우리 나라가 세계 열번째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우리 나라의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인 KIPOnet과 특허청의 특허행정정보화 컨설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투자 및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발명진흥, 특허사업화, 지식재산 교육훈련 등 한국의 발전된 특허행정 경험을 양국에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기대된다.

# 특허물질 이용한 항균보습 화장품 개발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이 영국 바이오 기업과 제휴하여 항균보습 제품을 개발하고, 이 회사와 함께 세계시장 진출에 나섰다.

피부약 전문 벤처인 바임래버러토리즈(대표 안일호)는 지난달 8일 '영국 아베시아(Avecia)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항균보습 화장품 '세이퍼러스'를 개발, 시판했다'고 밝혔다. 아베시아가 특허를 갖고 있는 항균물질 '코스모실'에 바임래버러토리즈가 보유한 '무궁화 사포나 린' 추출기술을 결합한 것으로, 항균력과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 한 이 제품으로 바임래버러토리즈는 향후 국내와 아시아 지역 판매를 맡게 되며, 아베시아는 제품 품질평가 결과가 좋을 경우 유럽과 미주 지역 판매를 맡는다.

두 회사는 지난달 바임 측이 코스모실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개발하는 한편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판매를 공동으로 진행키로 제휴를 맺었다. 연 매출 7천 억원대의 아베시아는 세계 17개국에 연구소와 공장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세계 각국에 특허 등록된 50여종의 신물질과 신제품을 확보하고 있다.

바임래버러토리즈 안일호 사장은 '항균능력이 입증된 '코스모실'에 항산화력이 뛰어난 무궁화 사포나 린을 접목시킨 제품'이라며 '아베시아와 함께 선진국 시장 진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BM특허출원 증가 추세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BM특허 출원분이 조성된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BM특허 출원건수가 2003년 상반기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BM특허 출원건수는 2천4백54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고, 특허권자가 BM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

2003년도 상반기 출원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4백68건), 금융서비스(1백55건), 교육 및 의료(1백36건), 경매 및 수주(1백27건), 광고 및 홍보(1백25건), 택배 및 경영관리(94건), 게임 및 오락(81건) 순이었다. 또한 2003년도 상반기 BM특허 등록건수 역시 5백25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3.6% 증가했다. 이는 출원이 급증했던 2000년 이후 출원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사관 증원에 따라 심사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BM관련 등록의 94%(4백96건)가 내국인 출원 건이며, 6%(29건)가 외국인 출원 건으로 내국인의 등록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03년 상반기 BM특허 분야의 특허 결정률은 16.6%로 낮은 수준인데 BM특허 출원 중 특허 대상이 되지 않아 거절된 경우가 8.8%로 전기·전자분야의 0.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 또는 인간의 행위, 순수한 영업방법, 추상적인 아이디어 등 특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BM특허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를 통해 BM특허의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